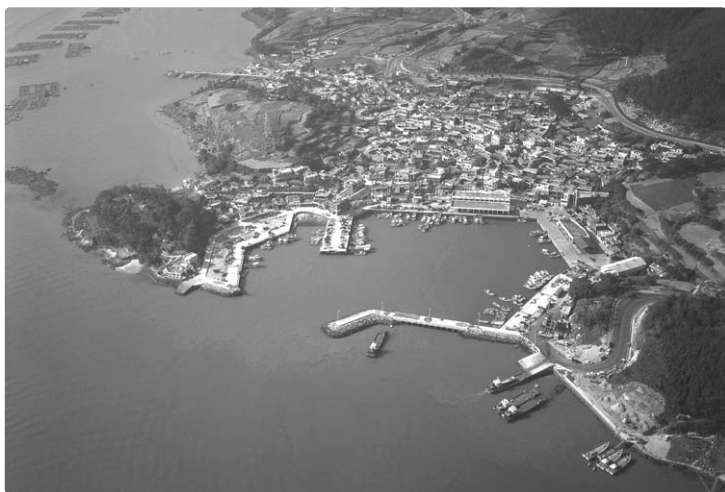


이달의 어항 ④ - 전남 여수시 돌산항

해안사찰에서 보는 일출과 남해바다, 돌산항

세계적인 해양수산도시 여수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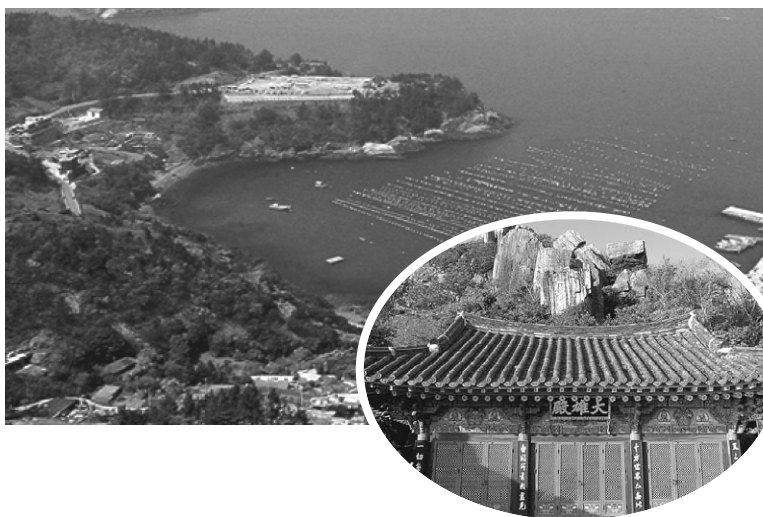
나도의 신비를 간직한 여수에 세계적인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여수는 국제수준의 해양관광과 문화,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이 달에는 세계적인 해양수산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수에 위치한 돌산항을 찾아가 본다.

유럽의 그 어느 해안보다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과 보석처럼 박혀 있는 수많은 섬들에 이끌려 여수 앞바다에 이르면 이 도시의 상징이 된 돌산대교를 만나게 된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조명 시설로 유명한 돌산대교를 건너면 섬마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돌산도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섬 끝자락 돌산읍 군내리에 돌산항이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돌산항은 어장과 근거리에서 기상 악화 시 주변 도서지역 어선의 대피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1988년 기본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1995년 정비계획을 세운 후 1998

년 정비계획을 완료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동방파제 125m, 서방파제 30m, 물양장 465m, 선양장 30m가 완공되었고, 수산현황은 전업 17가구 56명, 겸업 155가구 532명, 지방어선 48척이 있

으며, 우럭, 낙지 등이 주 어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은 2,034MT이다. 돌산항 주위에는 남해가 내려다보이는 해안 사찰과 송림이 울창한 해수욕장 등 관광명소가 많다. 먼저 돌산항 옆 은적암



은 암자 뒤로 돌 벼랑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이 울창해 절경을 이룬다. 암자에 들어서면 계곡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 피로에 지친 심신을 맑게 정화해준다.

금오산으로 발길을 옮기면 '해를 향한 암자' 라는 뜻의 향일암에 이르게 된다.

향일암은 매년 초 일출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 명소로 해남 땅끝마을,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남해안의 3대 일출명소로 꼽힌다. 산길을 따라 오르막길을 오르다 숨이 가빠질 무렵이 되면 눈 앞으로 시원하게 트인 바다와 기암절벽 사이에 자리잡은 암자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항구의 풍경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한다. 특히 하얀 부표들이 실에 꿰어 놓은 진주처럼 줄을 맞춰 떠 있는 모습은 어촌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향일암에서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길은 해안도로로 이어진다. 곳곳에 차를 세울 수 있는 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방죽포 해수욕장은 2백여년 수령의 송림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고 하얀 백사장이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돌산도의 해안 도로는 46km로 한시간 남짓이면 풍요로운 어촌과 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일주할 수 있다.

먹거리로는 서대회, 금품생이구이, 봉장어구이 등이 별미이다. 여수의 아낙들이 애인에게만 내놓는다고 해서 '쌩서방 고기' 라고도 불리는 서대회는 씹는 맛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으로 알려져 있고 금품생이구이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하다.

풍치가 수려하고 수산물 풍부하고, 돌산항에서는 관광명소와 맛깔나는 별미를 두루 만끽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 가는 길 - 호남고속도로 순천 IC - 여수방면 17번 국도 - 돌산대교 - 돌산섬 - 돌산항